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 비판적 읽기

김현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서

1. 세상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진단
2. 교회: 세상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대안

III.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에 대한 세 가지 비판

1. 교회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
2. 무저항 평화주의에 대한 비판
3. 위계질서적 구조에 대한 비판

IV. 맺는 말

• ABSTRACT •

This article intends to read Stanley Hauerwas's ecclesial ethic in a critical manner. To do this, firstly, I try to unpack Hauerwas's dualistic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world. For Hauerwas: (1) The world is the world of violence. According to him, the world after the tower of Babylon has become the world full of violence and war because together with the division of language the fear of others came into play in the world. (2) Since the modern period, the world has been governed by the spirit of liberalism. For Hauerwas, liberalism is considered the same as the freedom of individuals. As a result, in the liberal world, there is no common story that people share with one another, and the world is left with atomic individuals and their desires. (3) Unfortunately, according to Hauerwas, the church has imitated the characters of the world. It has served the world by dedicating itself to make the world better with the social programs of the world. The result was the dilution of the spirit of the Gospel. In so doing, the church has lost its distinctive identity.

To overcome these trends, Hauerwas argues that the social task of the church is to be the church itself. This means that the church can serve the world by being an alternative community for the world or a contrast model with the world. For doing this, according to Hauerwas, (1) the church must become a peace-making community. (2) In order to be a peaceful community, the church is formed by the story which is Jesus Christ. This is why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the embodiment of peace. (3) In this sense, the social task of the church is to nurture the people of virtue who knows the peaceful story of Jesus Christ. Secondly, I criticize Hauerwas's ecclesial ethic in the following three ways: (1) Hauerwas overemphasizes the distinctiveness of the church from the world. This may result in sectarianism though Hauerwas denies it. (2) Hauerwas does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justice. According to him, peace does not go together with justice because the latter always implies the logic of force and violence. However, the Bible says that peace is the result of justice. (3) Hauerwas's ecclesial ethic supports the authoritarian system of community in which master sits over disciple. In this sense, Hauerwasian community can be an unequal and unjust one. This article comes to a conclusion that for the church to be the church needs both its identity and its socio-political responsibility.

Key words : Stanley Hauerwas, World, Church, Ecclesial, Ethic, pacifism.

I. 들어가는 말

오늘 이 땅의 기독교윤리의 흐름을 한 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말이 “대안 찾기”라고 생각된다. “대안 찾기”로서의 기독교윤리는 교회가 내외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교회 내적으로는 목회자들의 윤리의식 부족과 교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대사회적인 책임부족 등으로 교회의 인지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안티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이 다시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 위기의 악순환이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신학의 한 분야로서 기독교윤리도 대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필자가 보기에 기독교윤리 분야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대안 찾기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이다. 문시영 교수는 이 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시민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기독교사회윤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소통인가? 정체성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시민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켜야 하는가? 혹은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시민사회의 본이 되어야 하는가?¹⁾

소통과 정체성. 이것이 두 가지 대안의 방향을 요약해주는 말이다. 이 두 대안을 논의하면서, 기독교윤리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두 명

1) 문시영,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165.

의 신학자가 있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막스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이고,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M. Hauerwas)이다. 스택하우스의 신학은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고, 하우어워스의 신학은 교회 윤리(ecclesial ethic)이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변증론의 하나로서 신학을 “문화 속에 있는 공동의 삶의 주요 분야들을 해석해주고 발전가능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지탱을 위한 윤리적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공적 담론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²⁾ 반면에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는 “교회의 최우선적 과제는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

이 글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과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 모두를 다루지 않고,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에 초점을 둔다. 그간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대한 관심은 비판적인 읽기보다는 그의 윤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덕과 이야기 윤리에 대한 소개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왔다.⁴⁾ 이 글에서 필자는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읽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견해를 중심으로 그의 교회중심적 윤리사상을 정리한 후에, 이에 대한 비판 세 가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필자가 정리하는 세 가지 비판은 필자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라, 몇몇 학자가 이미 지적해

2) Max, L. Stackhouse, 이상훈 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북코리아, 2008), 14.

3)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100.

4) 대표적으로 문시영,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광재욱,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기독교윤리사상」,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동향: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을 중심으로』(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101-147. 임성빈,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 '내러티브'의 사용: 리처드 니버, 제임스 구스타프슨, 스탠리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와 사회연구부 엮음, 『현대신학과 기독교윤리』(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229-252.

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필자의 목적은 이러한 비판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앞에서 적은 한국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

II.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서

1. 세상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진단

1) 폭력의 세상

하우어워스에게 교회와 세상은 이중적인 관계를 가진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세상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관계적 개념이다.⁵⁾ 이 말은 교회와 세상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이해될 수도 없고 의미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회와 세상의 관계성은 두 가지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는 존재론적 의미에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하우어워스가 말하듯이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다. 세상 속 이외에 교회가 있을 다른 자리는 없다.”⁶⁾ 그래서 하우어워스에게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세상 안에 있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즉 어떤 형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⁷⁾ 둘째는 인식론적 의미에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세상은 교회가 없이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그에 의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이며 하나님께서

5) Arne Rasmusson, *The Church as Polis: From Political Theology to Theological Politics as Exemplified by Jurgen Moltmann & Stanley Hauerwas*(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5), 211.

6)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김기철 옮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서울: 복 있는 사람, 2008), 61.

7) 같은 책, 62.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이다. 하지만 교회가 없이는 세상은 이러한 사실을 알 길이 없다. 다시 말해서 파괴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세상이 구원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이다. 하우어워스가 주장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지적해주는 교회가 없이는 세상은 그 자신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⁸⁾ 따라서 하우어워스에게 교회는 “반-세상(anti-world)이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고자 시도”하여야 한다.⁹⁾ 이러한 의미에서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교회 윤리는 분파주의적이지(sectarian) 않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하우어워스에게 있어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다르다(distinct). 교회와 세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행위자(agent)의 차이이다. 다시 말해서 양자의 차이는 분회파가 말하는 분명히 구분되는 두 영역(realm)의 차이도 아니고, 창조의 질서와 구속의 질서에 속하는 차이도 아니다. 오히려 교회와 세상 양자의 차이는 “예수가 주리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입장의 차이이다.¹⁰⁾ 나아가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양자가 가지는 이야기의 차이에 존재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이지만, 세상은 이러한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언어와 생활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섬과 같은 존재,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식민지”와 같은 공동체이다.¹¹⁾

8)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100.

9) 같은 책, 같은 곳.

10) 같은 책, 101.

세상이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모른다는 사실은 세상을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다시 말해 평화로 구체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모르는 세상은 폭력과 전쟁의 현장이 되어 버린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폭력적인 세상은 바벨탑의 역사로부터 연원하는데, 그 이유는 바벨탑 사건에서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바벨탑에서의 언어의 분리와 더불어 세상에 전쟁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타자를 자신의 이야기 안으로 동화시키려고 강제하거나 혹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타자를 제거하려는 시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두려움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자 파괴의 전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¹²⁾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증오에 의해서 지배되었고, 그 결과로 폭력적이고 갈리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하우어워스는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만일 맥킨타이어가 옳다면, 우리는 불확실한(*precarious*)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도덕적으로 파편화된 세상에서의 삶은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 논증 자체가 우리의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증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염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자신의 평화와 서로와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항상 폭력적

11)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13.

12) Stanley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Durham: The Labyrinth, 1988), 49.

이었다는 것은 인정되는 바이지만, 우리의 문명이 그 자체 내에 평화를 보증하는 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느낄 때, 우리는 아무런 희망 없이 버려진 것 같다.¹³⁾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오늘날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이 바로 9.11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이 9.11은 “순수한 테러”에 지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의미가 칼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세상이 자신의 “유일한 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경배한다.” 것을 드러내준다.¹⁴⁾ 이렇게 볼 때에 알브레히트(Gloria Albrecht)가 옳게 지적하듯이, 하우어워스에게 바벨탑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인간 조건을 구성하는 패러다임”으로 작용한다.¹⁵⁾ 앞에서 보았듯이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폭력적인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이렇게 폭력의 온상이 되어버린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린다. 후에 논의하겠지만,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평화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교회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대안의 공동체(alternative)”가 되어야 한다.¹⁶⁾ 이 대안의 공동체인 교회가 없이 세상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역사도 가질 수 없다. 폭력의 세상과 구분되는 교회의 이러한 독특성이 하우어워스의 교회론적 윤리의 근간을 형성한다.

13)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5-6.

14) Stanley Hauerwas, *Performing the Faith: Bonhoeffer and the Practice of Nonviolence*(Grand Rapids: Barzo Press, 2004), 213.

15) Gloria Albrecht, *The Character of Our Communities: Toward an Ethic of Liberation for the Church*(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32.

16)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54.

2) 현대세상과 자유주의

자신의 저서 『더 나은 소망(A Better Hope)』에서 하우어워스는 “자유주의(liberalism)에서 주장되는 덕과 악덕에 관한 논쟁들로 피곤할” 정도라고 고백한다.¹⁷⁾ 이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하우어워스는 초기부터 계속해서 자유주의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자유주의가 미국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일 뿐 아니라 특히 근대 세상 일반의 정치이론이기 때문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자유주의의 근본 이상은 “자유(freedom)의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데 있다.¹⁸⁾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는 계몽주의의 후예로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자유로운 인간을 양성해내고자 한다. 그래서 하우어워스는 자유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나는 자유주의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특수성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자하는 계몽주의의 기획으로부터 나온 충동으로 이해한다. 인식론적(epistemological) 입장으로 자유주의는 어떤 특수한 전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부터도 이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토대주의(foundationalism)를 옹호하려는 시도이다.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을 사회의 최고 통일체(unit)로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 과제는 자의적인 욕구의 통일체를 사이에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형태들 사이에는 엄격한 논리적 관계(entailment)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형태들이 종종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¹⁹⁾

17) Stanley Hauerwas, *A Better Hope: Resources for a Church Confronting Capitalism, Democracy, and Postmodernity*(Grand Rapids: Brazos Press, 2000), 10.

18)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Resident Aliens: A Provocative Christian Assessment of Culture and Ministry for People who Know that Something is Wrong*(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50.

19) Stanley Hauerwas, *Against the Nations: War and Survival in a Liberal Society*(Minneapolis: Winston Press, 1985), 18.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하우어워스에게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정의되는 자유주의는 두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는데, 두 가지 모두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첫째, 인식론의 한 형태로서 자유주의는 보편적이고 비역사적인(ahistorical) 진리를 추구한다. 하우어워스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시도를 “토대주의자의 인식론(foundationalist epistemology)”을 옹호하는 것이라 본다.²⁰⁾ 근대의 인식론자들이 보여주듯이 토대주의자의 인식론은 모든 지식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추구한다. 이러한 토대주의 인식론이 윤리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윤리학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합리성에 따라서 세상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윤리학의 대표자는 바로 칸트(Immanuel Kant)이다. 칸트에 따르면 정언명법(categorical imperative)과 같은 도덕법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변의 보편법칙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이러한 토대주의자 윤리학은 “행위자의 우연적인 역사를 도덕적 판단과 평가와는 무관하게 만들어 버린다.”²¹⁾ 이러한 윤리학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²²⁾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있음을 보지 못한다. 더욱이 아이러니하게도 토대주의자 윤리는 애초에 의도했던 자유가 아니라 강제(coercion)의 논리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만일 타자가 ‘합리성’에 관한 나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타자에게 자신의 참된 자아에 충실하라고 강요하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보

20)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9.

21)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1.

22)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131.

기” 때문이다.²³⁾ 다시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 합리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조정하는 기제는 “힘(power)의 논리”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다. 왜냐하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논리에 따르면,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무런 공동의 역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오히려 공동선이 아니라 사익이 인간의 행위를 인도하는 동기가 된다. 자유주의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체제가 된다. 그러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들이 자유주의 사회를 위한 규범이 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정의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주의로부터 역설적인 결론이 발생한다. 하우어워스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은 자아의 자유가 아니라 자아-중심성(self-centeredness), 외로움, 피상성, 그리고 약탈적인(harried) 소비주의이다.”²⁴⁾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를 열망하는 자유주의는 결국에는 자아-이익적인(self-interested) 사람들을 창출하고 만다.²⁵⁾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존하려는 욕구 외에는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하우어워스가 교회가 예수의 이야기와 전통을 공유하는 새로운 폴리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세상의 조력자로 전락한 근대 교회와 신학, 그리고 기독교윤리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근대 서양의 교회는 콘스탄티누스의 이상을 꿈

23)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2.

24) Hauerwas & Willimon, *Resident Aliens*, 50.

25)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79.

꾸어 왔다. 이 말은 미국의 사회복음주의에서 가장 잘 드러나듯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교회가 속한 나라를 기독교국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상이였다. 이러한 콘스탄틴주의는 “교회가 자신이 안전하게 살아갈 세상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²⁶⁾ 그래서 콘스탄틴주의를 신봉한 교회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치와 제도를 통하여 기독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근대 교회는 자유 민주주의가 “(콘스탄틴주의적) 기독교 신념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였다.²⁷⁾ 그리고 교회의 주된 관심은 교회가 얼마나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였다.²⁸⁾

여기에서 신학과 기독교윤리는 콘스탄틴주의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신학은 하나의 변증론 혹은 번역의 신학이 된다. 그래서 신학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현대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를 제일의 과제로 삼는다.²⁹⁾ 이러한 변증론의 정치적 가정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도 동시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정치적인 구조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케 하는 지적인 이론들이 필요한데, 교회의 주장을 이런 지적인 이론으로 바꾸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³⁰⁾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신학은 그것이 속한 사회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의 양상이 기독교윤리에 도 그대로 나타난다. 기독교 윤리의 이상은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바꾸기 위한 사회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이러한 이상

26)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How the Church is to behave if Freedom, Justice, and a Christian Nation are Bad Idea?*(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18.

27) Stanley Hauerwas, *Dispatches from the Front: Theological Engagement with the Secular*(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5), 93.

28) Hauerwas & Willimon,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24.

29) 같은 책, 24.

30) 같은 책, 28.

은 사회복음주의자들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사회복음주의자들은 당시에 미국사회를 기독교국가로 여기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사회에 관여하였다.³¹⁾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사회를 보다 나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정의와 같은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여하는 수단이 된다. 그 결과로 기독교윤리는 자신의 독특한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로 세상과 사회의 정치적 이상에 자신을 동화시켜 버린다. 하우어워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므로 철학 윤리학의 지배적인 양식들이 신학 공동체로부터 거의 도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그 반대로 신학자와 종교 사상가들은 대부분 철학 윤리학자들에 의해서 도출된 논증의 양식들과 결론들이 보다 명백하게 종교적 전제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윤리학자들에 의해서 도출된 논증의 양식들과 결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써왔다. 사회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기독교 윤리의 과제는 수정(revision)이 아니라 순응(accommodation)이었다.³²⁾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이러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이상으로부터 발생한다. 첫 번째, 세속적인 정책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보다 궁극적인 정치적 과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교회의 궁극적 과제는 사회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자신이 되어서, “정치체제와 사회의 도덕적 전제들에 도전하는 것”인데, 콘스탄틴주의에 물든 교회와 신학은 이 과제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다.³³⁾ 두 번째,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

31) Stanley Hauerwas, “On Keeping Theological Ethics Theological,” Ed. Stanley Hauerwas & Alasdair MacIntyre, *Revisions: Changing Perspectives in Moral Philosophy*(Notre Dame: University on Notre Dame Press, 1983), 22.

32) 같은 글, 같은 곳.

에 동화됨으로써, 자유주의를 모방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적 모습은 점점 더 “보다 광범위한 사회의 자유주의적 정치체제의 거울”이 되고 만다.³⁴⁾ 그 결과로 교회는 자신의 독특성과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진 공동체로서 세상의 본성과 한계를 알도록 해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순응에 있지 않고 수정에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윤리는 사회에 봉사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윤리를 신학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불변하는 도덕 원리가 아니라 그 자신의 독특한 도덕적 전통의 지혜가 필요하다.³⁵⁾ 이 도덕전통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³⁶⁾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사회에 동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전통을 가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일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정치적 과제이다. 즉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자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으뜸가는 사회적 책무”이다.³⁷⁾

2. 교회: 세상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대안

1) 사회윤리인 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교회의 독특성에 대한 신념 때문에, 하우

33)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73.

34) Rasmussen, *The Church as Polis*, 301.

35) Hauerwas, “On Keeping Theological Ethics Theological”, 33.

36) 같은 글, 34.

37) Stanley Hauerwas, 문시영 옮김, 『교회됨』(서울: 북코리아, 2010), 169.

어워스는 교회가 정치사회적 이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교회가 사회정치적 이슈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되는 자신의 정치적 과제도 망각한다. 거스탐슨(James Gustafson)은 이러한 하우어워스의 입장을 “분파주의적 퇴거(withdrawal)”라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하우어워스의 분파주의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분명한 정체성과 독특성을 부여하지만, “기독교를 보다 광범위한 과학과 문화의 세상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질 뿐 아니라, 세상과 상호 의존하는 패턴으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모호성에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³⁸⁾ 이러한 거스탐슨의 비판에 대하여 하우어워스는 진정한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사회정치적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스탐슨은] 기독교인에게 유일한 선택이 문화에의 완전한 참여나 완전한 퇴거라고 가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슈는 어떻게 교회가 기독교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국면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이어지는 선택적 참여를 인도할 수 있는 해석적 범주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응답한다.³⁹⁾ 여기에서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유명한 언명, 즉 교회는 하나의 사회적 윤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윤리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교회가 하나의 사회윤리라는 주장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제정되고 (enacted) 이야기되며 들려지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려는 시도이다. 기독교 사회윤리는 무엇보다도 사회행동을 위한 원리나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예수의 삶의 이야

38) James Gustafson, “The Sectarian Temptation: Reflections on Theology, the Church and the University”, *Proceedings of the Catholic Theological Society* 40 (1985), 84.

39)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11.

기이다. 그러한 이야기는 그에 상응하는 공동체의 형성을 요구하는데, 이 공동체는 그것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살아온 공동체이다. 교회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공동체인 한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의 사회윤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사회윤리이다. 하나님이나 인간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의 공동체도 아니고 그러한 이야기도 가지지 않는다.⁴⁰⁾

이 언명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어떤 사회전략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 오히려 교회의 정치적 과제는 사회가 모르는 그 자체의 독특한 모습을 실현함으로써, 사회가 제시하는 사회정치적 어젠다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 있다. 그래서 하우어워스는 “복음은 사회적 복음이다. 기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지만, 그것은 강제와 거짓에 기반하는 모든 정치의 불충분성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이고, 지배보다는 종됨(servanthood)에 힘의 근원을 갖는다.”라고 주장한다.⁴¹⁾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가 사회윤리라는 언명은 교회가 “대안의 폴리스,” 즉 “대안의 정치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²⁾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세상에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우어워스는 이러한 교회의 정치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오늘의 정치에 대한 도전은 새로운 양상을 띠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도, 이제까지의 방식과 다를 바 없다. 그 도전이란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의 “대조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정치와는 달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신실한 설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40) 같은 책, 101.

41)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02.

42) Hauerwas, *Against the Nations*, 130.

불신보다는 신뢰에 기초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국가권력과는 달리 자신의 안전보장 혹은 내적 복종을 보증하기 위해 폭력에 호소하기를 거절한다. 진리를 확신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강제력을 신뢰하지 않는다.⁴³⁾

그러므로 교회가 대안 공동체라는 점은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보다 상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이 이야기의 내용 역시 세상이 가지는 이야기의 내용과는 다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세상의 이야기가 폭력과 전쟁을 본질로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평화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러한 평화의 이야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덕의 공동체를 양육해내어야 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 윤리적 과제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 자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하는 사회정치적 과제이다.⁴⁴⁾ 이렇게 교회가 됨으로써 교회는 세상을 위한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교회가 됨으로써, 세상이 자신이 세상으로서의 본질을 알게 한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의 사회윤리라고 말하는 의미이다. 이제까지 보았듯이, 대안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주장하는 하우어워스의 윤리에는 한편으로는 이론적 부분인 이야기와 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 부분인 평화의 윤리가 있다.

2)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

앞에서 보았듯이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세상은 파편화되고 폭력적이

43) Hauerwas, 『교회됨』, 171.

44)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99.

다. 그렇다면 교회가 대안의 정치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는 폭력적인 세상과는 다른 평화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가 선포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우어워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윤리인 교회의 핵심에 놓여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 없이는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소망을 상실한다;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그것의 구체적인 성격을 상실한다.”라고 주장한다.⁴⁵⁾ 그러므로 하우어워스는 교회가 교회되라는 요청은 “교회가 세상 내에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하여 정당하게 세상을 이해하는 자원들을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요청”이라고 언급한다.⁴⁶⁾ 이러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우어워스의 교회론적 윤리의 핵심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이자 내용”이기 때문이다.⁴⁷⁾ 하우어워스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당대의 권위들에 도전하시며, 그리고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시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 땅에 현존하게 하신다.⁴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이해할 수 있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예수의 삶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재현한다. 특히 예수의 시험이

45) Hauerwas, *Against the Nations*, 112.

46)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02.

47) Hauerwas, *Against the Nations*, 113.

48)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74.

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제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평화는 “세상이 약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랑의 힘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⁹⁾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과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정점이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이 “자신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자가 되실 정도로 상처 입으시는 분”을 본다.⁵⁰⁾ 이러한 사실은 진정한 힘이 남에게 강제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은 평화가 세상의 진정한 대안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서는 모두에게 용서의 힘에 의하여 평화롭게 살아가는 가능성을 제공한다.”⁵¹⁾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 행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서로와의 평화를 찾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알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⁵²⁾ 따라서 비폭력과 평화주의가 하우어워스에게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그러므로 평화주의는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많은 것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암시(implication)가 아니다. 평화주의는 기독교인이 자신이 살아야 하는 단순히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평화주의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기독교 신념의 형성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형식”이다.⁵³⁾ 이러한 평화의 이야기가 교회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다.

알브레히트가 지적하듯이,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에서 비폭력은 무지

49) 같은 책, 79.

50) 같은 책, 81.

51) 같은 책, 89.

52) 같은 책, 93.

53) Stanley Hauerwas, “Pacifism: Some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Faith and Philosophy* 2, (april 1985), 99.

항(nonresistance)으로 확장된다.⁵⁴⁾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희생이 이러한 무저항적 사랑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기독교 공동체의 무저항적 성격이 하나님의 섭리적 세상 통치의 성격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형성하는 기독교 이야기가 가지는 힘의 중심적 특성”이다.⁵⁵⁾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저항의 윤리에 헌신해야” 한다.⁵⁶⁾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는 폭력적인 세상의 한 가운데서 평화 만들기이다. 하우어워스는 이러한 교회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의 평화이신” 분의 형태인 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평화 만들기(peacemaking)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바로 그 형태이다. 우리가 서로 일치를 추구할 때에 평화 만들기는 교회에서의 우리의 관계를 구성하는 형식인데,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이러한 까닭에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다.⁵⁸⁾ 이러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하여, 교회는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폭력의 세상 가운데서 비폭력적으로 살아간다. 기독교 비폭력은 세상의 폭력을 제거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이 폭력의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는 방식”이다.⁵⁹⁾ 이러한 목적을 위하

54) Albrecht, *The Character of our Communities*, 54.

55)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101.

56) 같은 책, 173.

57)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95.

58)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99.

여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폭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용서에 기반한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가 용서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데 의존한다.”라고 적는다.⁶⁰⁾ 그에게 있어서 용서를 수용하고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화해를 위한 연습이 된다.⁶¹⁾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를 배워야 한다.⁶²⁾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대안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야기와 덕의 공동체로서 교회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는 이야기로 유지되고 형성되는 공동체이다. 그런데 교회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와 다르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야기는 세상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우어워스는 “교회는 예수 이야기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⁶³⁾ 이 언명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예수는 교회를 형성시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에 기여한다는 뜻이다. ‘대조모델’이 없다면 세상은 생존을 위해 권력에 의존하는 자신들의 기이함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⁶⁴⁾ 우리가

59) Hauerwas, *Performing the Faith*, 203.

60)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93.

61) Reinhard Hutter, “The Ecclesial Ethics of Stanley Hauerwas”, *Dialog 30* (Summer 1991), 235.

62)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93.

63) Hauerwas, 『교회됨』, 109.

64) 같은 책, 110.

보았듯이, 하우어워스의 교회론은 자유주의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다.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의 전제는 인간이 역사와 전통에 영향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하우어워스는 인간이 역사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인간이 한 공동체가 가지는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야기가 자아를 자아 되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야기가 자아를 둘러싼 “세계까지도 형성한다.”⁶⁵⁾ 이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와는 다른 교회에만 속하는 특수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특수한 기독교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우어워스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적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부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혼란시키는 것은 우리의 특수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이야기는 “텍사스 출신”이라는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특수한 까닭이고, 또한 그 이야기는 특수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루어야 하는 우리 실존의 다양한 국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 실존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지정된 (designated) 사람들에게 속한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인생철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공된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한다.⁶⁶⁾

그러므로 이야기와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의존적이다. 이야기는 교회라

65)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31.

66) 같은 책, 29.

는 특수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간다. 그러므로 이야기와 교회공동체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앞에서 평화에 관한 논의가 기독교론에 정초했듯이, 이야기에 관한 하우어워스의 논의의 핵심도 기독교론적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공동체가 유지하는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형성하는 이야기다.”⁶⁷⁾ 그러므로 하우어워스는 반복해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이 예수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대안의 모델로 존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능케 하는 이야기이다.⁶⁸⁾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사회윤리라는 하는 말이 기독교론적으로 재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곧 교회의 사회윤리가 된다.⁶⁹⁾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 윤리적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는 “이야기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공동체”이다.⁷⁰⁾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가?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는 이야기를 체득하고 그 이야기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형성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윤리라는 말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특수한 사람들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⁷¹⁾ 다시 말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는 특수한 교회의 덕을 가진 사람들을 형성한다.

67)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50.

68) 같은 책, 49.

69) 같은 책, 40.

70) 같은 책, 4.

71) 같은 책, 102.

하우어워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더욱이 교회가 하나의 사회윤리를 갖는다고보다는 교회자체가 사회윤리라는 것은 시대를 가로질러 기구로서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덕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덕은 단순히 어떤 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데 필수적인 덕이다. 그들은 그들 사이와 또한 세상과도 평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⁷²⁾

여기에서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덕은 “열정을 형성하고 습관(habits)을 창조하는 기질(dispositions)”을 의미한다.⁷³⁾ 이러한 의미에서 덕은 성품(character)과 의미를 같이한다. 이러한 덕이나 성품을 가지면, 그것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수한 기술(skills)”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용기라는 덕을 가진 사람은 용감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⁷⁴⁾ 이러한 특수한 기술은 앞에서 살핀 이야기에 의해서 제공된다. 그러므로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하는 적합한 덕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야기 없이는 덕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소유하는 이야기와 덕의 장소가 본질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⁷⁵⁾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특수한 세트의 덕에 의해서 형성된 특

72)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02-103.

73) Stanley Hauerwas, “Virtue”, Ed. James, F. Childress & John Macquarrie,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648.

274)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115.

75)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24.

수한 종류의 사람들”이다.⁷⁶⁾ 그러므로 교회는 기독교적 덕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슨(Neville Richardson)이 바르게 지적하듯이, 하우어워스는 윤리적 결단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성품, 그리고 그 특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⁷⁷⁾ 이러한 까닭에 하우어워스에게 윤리적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그에게는 항상 존재가 행동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하우어워스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적 과제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덕스러운 사람들과 그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다.

III.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에 대한 세 가지 비판

1. 교회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

하우어워스는 강한 어조로 “세상과 교회는 결코 같은 것일 수 없다. 만일 이것을 ‘퇴거’라고 비판한다면,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 세상은 교회일 수 없다. 비록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두려움을 연료 삼아 폭력의 불길을 지속적으로 태워내는 곳이다.”라고 주장한다.⁷⁸⁾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우어워스에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되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폭력이 만무하는 세상에 대하여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로서 대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안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교회는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

76) Hauerwas, *Against the Nations*, 118.

77) Neville Richardson, “Ethics of Character and Community”, Ed., C. Villa-Vincencio & John De Gruchy, *Doing Ethics in Context: South African Perspective*(Maryknoll: Orbis Books, 1994), 95.

78) Hauerwas, 『교회됨』, 213.

이 하우어워스의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정치제도들을 위한 대조 모델(contrast model)이 되어야 한다.⁷⁹⁾ 나아가서 교회는 서로의 신뢰를 요구하는 사회 정책을 위한 대안의 자료를 제공하며 공적 관심으로서 덕과 성품을 발전시키는 삶의 형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⁸⁰⁾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별되는(distinctive) 이야기에 의하여, 기독교인은 세상과 구별된다.”⁸¹⁾ 이렇게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우어워스는 교회를 독특한 언어와 삶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그네 된 사람들(resident aliens)”을 양육하는 “식민지”라고 주장한다.⁸²⁾ 이러한 식민지로서 교회는 세상과는 전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신학자 퍼거슨(David Fergusson)은 교회의 독특성(distinctiveness)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지나친 강조가 하나의 해석학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서 해석이 종종 세속적 가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하우어워스는 보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의식이나 교회에서의 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계몽주의 이후의 세속 문화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우어워스는 인식하지 못한다.⁸³⁾ 이러한 하우어워스의 한계는 세상과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취약성으로 작용한다. 하우어워스에게는 교회 외에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서로 다

79)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84.

80) 같은 책, 86.

81)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60.

82) 같은 책, 같은 곳.

83)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73-74. See also David Fergusson, “Another Way of Reading Stanley Hauerwas?”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0, 2 (July 1997), 242-249.

른 공동체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기 때문이다.⁸⁴⁾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일종의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우어워스에게 교회와 세상은 서로를 이해하며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는 교회의 본질자체를 변질시켜 세상에 순응하게 한다. 하우어워스가 변증신학 혹은 번역의 신학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우어워스의 주요 비판가 중의 하나인 스타우트(Jeffrey Stout)는 교회의 독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하우어워스는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분파주의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상의 대조모델 혹은 대안공동체로 간주하는 한, 하우어워스에게 교회-세상의 이원론(church-world dualism)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타우트에 따르면, 하우어워스를 분파주의로 보이게 하는 교회-세상의 이원론은 하우어워스가 요더(John Howard Yoder)의 교회-세상의 구분을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반자유주의(antiliberalism)와 결합시킬 때 발생한다.⁸⁵⁾ 여기서 보다 큰 문제는 맥킨타이어의 반자유주의에 있다. 앞에서 살핀 바 있는 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들 사이에 공유할 수 있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하우어워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맥킨타이어의 『덕 이후(After Virtue)』에서의 논의와 똑같다.⁸⁶⁾ 맥킨타이어와 하우어

84) Todd Whitmore, “Beyond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n Christian Ethics: A Critique of Stanley Hauerwas,”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1989, 220.

85) Jeffrey Stout, *Democracy and Traditio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148.

86)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Notre Dame: University

워스에 따르면,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원자화된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은 개인은 선에 대한 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념이 없기에 공유할 수 있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맥킨타이어와 같이 하우어워스는 자유주의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표명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복음이 진리라면, 자유주의의 정치학은 거짓이어야 한다.”⁸⁷⁾ 그러므로 하우어워스에게는 기독교의 복음이 공동체에 덕(virtue)을 제공한다면, 자유주의는 오직 악덕(vice)만 제공한다는 이원론적 이해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도식에서는 세상과 대화하거나 협력하는 시도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시도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거나 희석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대안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 교회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스타우트에 따르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단절은 하우어워스를 분파주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

2. 무저항 평화주의에 대한 비판

하우어워스에게서 교회와 세상의 분명한 구별과 단절은 그의 절대 평화주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⁸⁸⁾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우어워스가 진단하는 세상은 폭력과 전쟁의 세상이지만,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메시지는 비폭력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하우어워스는 기독교론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폭력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하우어워스는 “우리가 비폭력이 세상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우리도

of Notre Dame Press, 1984).

87) Hauerwas, *A Better Hope*, 124.

88) Stout, *Democracy and Tradition*, 158.

오직 비폭력의 길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⁹⁾ 이러한 비폭력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이 인내(patience)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지어 불의에 직면해서도 폭력적으로 저항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⁹⁰⁾ 그러므로 이러한 인내의 덕을 실천한다는 것은 아무런 통제 없는 삶(living out of control)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⁹¹⁾ 왜냐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무기력한(powerless) 분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우어워스에게서 비폭력은 무저항(nonresistance)이 된다. 문제는 하우어워스의 무저항 평화주의가 정의를 무시한다는 데 있다. 하우어워스는 정의는 결국에는 폭력의 논리에 호소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우리가 소망하기를 배운 배워온 만큼, 우리는 또한 인내해야(patient) 한다. 하나님은 강제(coercion)나 폭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으로 들어오는가를 보게 되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cruciform)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 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한 기다리기를 배워야 한다. 그러한 기다림은 우리만큼이나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상에서는 사실상 고통스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이용하시리라는 약속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이 정당화된다고 믿는다. 더욱이 교회가 하나의 사회윤리를 갖기보다 하나의 사회윤리라는 것의 의미가 적어도 사회윤리가 의미하는 바를 재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내가 요청된다. 너무도 자주 사회적으로 타당하게

89) Hauerwas, *Against the Nations*, 154-155.

90)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04.

91) *Ibid.*, 105.

(relevant) 보이려는 노력에서 교회는 “현실” 정치가 내포하는 것에 대한 세상의 어젠다를 받아들여 왔다. 그래서 세상을 책임적으로 봉사하라는 요청은 너무도 종종 교회가 세상에게 단순히 세상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어떤 사람들의 타자들에 대한 지배의 계속을 의미하는 “정의”를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종결된다.⁹²⁾

하우어워스는 이와 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정의를 하나의 나쁜 생각(bad idea)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이렇게 정의의 의미를 비판하는 하우어워스의 무저항 평화주의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즉 평화는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에 귀기울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선언한다.(사32:17) 무저항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하우어워스는 이사야가 선언하는 바와 같이 정의를 통해서만 자신이 꿈꾸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반면에 몰트만(Jurgen Moltmann)은 정의를 통한 평화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적 평화는 “폭력과 고통, 그리고 불의가 없을 뿐 아니라 정의와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타인, 그리고 자연과 교제하는 삶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⁹³⁾ 그리고 이러한 평화를 위해서는 때때로 “폭력과 전쟁에 저항하므로 정의와 생명을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⁹⁴⁾ 그러므로 몰트만이 말하는 평화는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평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우어워스에게 정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또한 그는 정의에 몰두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92)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104.

93) Johann-Baptist Metz & Jurgen Moltmann, *Faith and the Future: Essays on Theology, Solidarity and Modernity*(New York: Orbis Books, 2000), 151.

94) 같은 책, 같은 곳.

주장한다.⁹⁵⁾ 하지만 몰트만은 이러한 하우어워스의 염려가 참된 평화는 정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몰트만에 따르면 성경에서는 정의가 평화를 창조해내지만, 평화는 정의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의가 평화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평화 행위는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⁹⁶⁾ 결론적으로 정의가 없이는 평화를 생각할 수 없다는 성경적 진리를 하우어워스는 도외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위계질서적 구조에 대한 비판

하우어워스에게 세상은 타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는 비폭력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덕스러운 사람들을 양육함으로써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대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덕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우어스에 따르면,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승(master)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덕의 모범을 보여주는 스승을 본받음으로써만,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우어워스는 벽돌쌓기의 예를 든다. 우리는 벽돌쌓기를 단순히 어떻게 쌓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없다. 벽돌을 잘 쌓으려면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습관화될 때까지 훈련을 통하여 배워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우어워스에게 대안의 공동체는 위계질서적이고 엘리트적인 요소를 갖게 된다. 실제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95) Hauerwas, *After Christendom*, 68.

96) 같은 책, 153.

물론 명예(honor)와 연합된 도덕적 삶에 대한 설명들은 위계질서적이고 엘리트적이다. 나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나는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특징인 도덕적 실존의 민주화는 별로 필요치 않다. 사실 상 나는 평등주의를 민중의 이편이자 우리 삶의 특징인 질투와 영향력을 사용하는 정치의 근원으로 간주한다. 재미있는 질문은 권력자집단이나 엘리트들이 존재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봉사하는 선이 무엇이나이다. 기술을 가진 조각가나 시인은 우리를 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들의 능력 때문에 선한 공동체에서는 정당한 특권을 부여받아야 한다.⁹⁷⁾

그러므로 하우어워스의 공동체에서는 덕과 기술을 가진 스승이나 엘리트가 얼마나 권위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위가 있을 때에만, 덕의 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에 대한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참여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가 획득하고 수련해야 하는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습관을 구체화하는 기술의 공동체에 근거하여 선생님의 권위가 받아들여져야 한다.”⁹⁸⁾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이러한 권위를 가진 권력자집단이 없다면 한 공동체나 사회는 오히려 절대 권력을 가진 관료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도 있다.⁹⁹⁾ 이러한 까닭에 하우어워스에게 권위나 위계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우어워스의 위계질서에 기초하는 공동체에서 누가 권위를 가진 스승인가(who are masters?)라는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알브레히트의 하우어워스에 대한 비판이 매우 유용하다. 알브레히트는 여성 해방신학자의 입장에서 하우어워스의 교회론적 윤리학을 비판한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의 입장과 하우어워스의 입장에는 동일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양자 모두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과 인간의 지식 역시 사회

97) Hauerwas, *Dispatches From the Front*, 8.

98) Hauerwas, *After Christendom*, 105.

99) Hauerwas, *Dispatches From the Front*, 15.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알브레히트가 말하는 위치의 정치학(politics of location)을 고려할 때 드러난다. 그녀가 말하는 위치의 정치학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인종, 계급, 성, 그리고 성적 지향의 물질적, 구체화된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고려될 때 드러나는 차이”를 말한다.¹⁰⁰⁾ 따라서 하우어워스가 속한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알브레히트에 따르면 모든 신학과 신학 윤리는 “한 사람이 선택한 사회적 위치에 대한 헌신”에 결정적으로 영향 받기 때문이다.¹⁰¹⁾

그렇다면 하우어워스가 선택하여 지지하는 사회적 위치는 무엇인가? 알브레히트에 따르면, 그의 사회적 위치는 “서구의 산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자아도취적이고, 파위를 추구하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다.¹⁰²⁾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우어워스의 사회적 위치는 중간층과 상위층에 속하는 미국 백인 남자이다.¹⁰³⁾ 그러므로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교회공동체에서는 주로 백인 남자 성직자나 백인 남자 평신도 지도자가 주도적인 권위를 잡는다.¹⁰⁴⁾ 그렇다면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위치, 백인 남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우어워스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이 경험한 문제와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역설적인 결론, 즉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비폭력 무저항의 윤리가 결국에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우어워스는 자신이 선택한 사

100) Gloria Albrecht, “Myself and Other Characters: A Feminist Liberationist Critique of Hauerwas’s Ethics of Christian Character”,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50:2, 1997, 99.

101) Gloria Albrecht, “Unmasking the Difference: Nonviolence and Social Control”, *Crosscurrents* (Spring 2002), 20.

102) Albrecht, *The Character of our Communities*, 110.

103) Albrecht, “Unmasking the Difference”, 22.

104) Albrecht, *The Character of our Communities*, 50.

회적 위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가난한 백인 남성과 여성, 유색인종, 가난한 자와 같은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타자”로 무시하고 배척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치를 옹호하는 하우어워스의 비폭력 무저항은 “사회적 특권과 파워, 그리고 통제, 특히 여성에 대한 통제”의 기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⁵⁾ 그래서 알브레히트에 따르면, 하우어워스가 지지하는 사회적 위치와 인간학은 “구체적인 지배 체제의 현실과 자신의 청중이 이익을 얻게 되는 불평등한 파워 관계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직면했을 때, 기득권을 가진 중산층과 상위층 백인 남자는 구조적 불의에 응답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¹⁰⁶⁾ 그러므로 알브레히트의 논의에 따르면, 하우어워스의 평화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위계질서의 공동체는 타자의 공동체를 위한 정의를 무시하고, 그에 대하여 폭력의 논리가 가능하게 되는 역설적인 결론에 빠질 수 있다.

IV. 맺는 말

이제까지 논의한 “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는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는 오늘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의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양면적 대답이 가능할 것 같다. 첫째,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교회 내의 무너지고 뒤틀린 모습 때문이라고 한다면, “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는 외침은 하나의 분명한 대안의 목소리가 될 것 같다. 교회 지도자의 성적 타락과 물욕과 명예욕. 교회 내에서의 폭력과 갈등. 교회의 대형화와 상업화. 하우어워스의 “교회 되라.”는 소리

105) Albrecht, “Unmasking the Difference”, 20.

106) 같은 글, 24.

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러한 비도덕성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외친다. 그리하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고 부러워하여서 닳고 싶은 공동체가 되라는 일침을 놓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는 하우어워스의 외침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예언자적 소리로 환영받을 수 있다.

둘째, 반면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 받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도 있다.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하우어워스에게 드러나는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적 도식을 가져왔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곳이지만, 세상은 죄악과 심판의 장소로 설교되어 왔다. 이러한 이분법적 도식은 교회로 하여금 개교회적인 성장에만 매달리게 하였고, 정의나 소수자의 인권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는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천주교에 비교할 때, 오늘 이 땅의 개신교 교회들이 비난받고 있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는 하우어워스의 외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한 대안의 목소리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대안의 모델이 됨으로써 교회는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우어워스는 주장하지만,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항상 복음의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듯이 “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는 하우어워스의 외침이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의 목소리로 보다 더 적합하려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 예를 들어 정의실현에의 책임을 도외시킬 필요가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남미의 해방신학이나 우리의 민중 신학이 보여주었듯이 그러한 사회적 책무가 때때로 교회로 교회 되게 하는 데 필수불가결

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가난으로, 불의로,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정의와 권리를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므로 교회로 교회 되게 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로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성(소통)을 동시에 고려하고 균형을 잡는 고뇌와 지혜의 일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재욱.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기독교윤리사상」.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동향: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 문시영.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 임성빈.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 '내러티브'의 사용: 리처드 니버, 제임스 구스타프 슨, 스탠리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와 사회연구부 엮음, 『현대신학과 기독교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229-252.
- Hauerwas, Stanley, 문시영 옮김.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김기철 옮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 있는 사람, 2008.
- Albrecht, Gloria. *The Character of Our Communities: Toward an Ethic of Liberation for the Church*.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 _____. "Myself and Other Characters: A Feminist Liberationist Critique of Hauerwas's Ethics of Christian Character".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50:2 (1997), 97-114.
- _____. "Unmasking the Difference: Nonviolence and Social Control." *Crosscurrents* (Spring 2002), 16-27.
- Fergusson, David.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Another Way of Reading Stanley Hauerwas?"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0:2 (July 1997), 242-249.
- Gustafson, James. "The Sectarian Temptation: Reflections on Theology, the Church and the University." *Proceedings of the Catholic Theological Society* 40 (1985), 83-94.
- Hauerwas, Stanley. *Performing the Faith: Bonhoeffer and the Practice of Nonviolence*. Grand Rapids: Barzo Press, 2004.
- _____. *A Better Hope: Resources for a Church Confronting Capitalism, Democracy, and Postmodernity*.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0.

- _____. *Dispatches From the Front: Theological Engagements with the Secula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5.
- _____. *After Christendom: How the Church is to behave if Freedom, Justice, and a Christian Nation are Bad Idea?*.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 _____. *Sanctify Them in the Truth: Holiness Exemplifi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
- _____.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rham: The Labyrinth Press, 1988.
- _____.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 _____.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 _____. "Virtue". In James, F. Childress & John Macquarrie(ed.).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648.
- _____. "Pacifism: Some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Faith and Philosophy* 2. 2 (April 1985). 99-104.
- _____. *Against The Nations: War and Survival in a Liberal Society*. Minneapolis: Winston Press, 1985.
- _____.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A Study in Theological Ethics*. Texas: Trinity University Press, 1985.
- Hauerwas, Stanley & Alasdair MacIntyre(eds.). *Revisions: Changing Perspectives in Moral Philosoph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Hauerwas, Stanley & William, H. Willimon. *Resident Aliens: A Provocative Christian Assessment of Culture and Ministry for People who know that Something is Wro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 Hutter, Reinhard. "The Ecclesial Ethics of Stanley Hauerwas". *Dialog* 30 (Summer 1991). 231-41.
-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 Metz, Johann-Baptist & Jurgen Moltmann. *Faith and the Future: Essays on Theology, Solidarity, and Modernity*. New York: Orbis Books, 2000.

- Rasmusson, Arne. *The Church as Polis: From Political Theology to Theological Politics as Exemplified by Jurgen Moltmann & Stanley Hauerwa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2.
- Richardson, Neville. "Ethics of Character and Community". In C. Villa-Vincencio & John De Gruchy(ed.), *Doing Ethics in Context: South African Perspective*. Maryknoll: Orbis Books, 1994. 89-101.
- Stackhouse, Max, L. 이상훈 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13-41.
- Stout, Jeffrey. *Democracy and Tra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Whitmore, Todd. "Beyond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n Christian Ethics: A Critique of Stanley Hauerwas".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1989. 207-25.

논문투고일 : 2011. 04. 29

심사개시일 : 2011. 05. 18

게재확정일 : 2011. 06. 09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첫째로 하우어워스의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이론론적 견해를 분석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1) 세상은 폭력의 세상이다. (2) 근대 시대 이후로 세상은 자유주의 정신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3) 하우어워스에 의하면, 불행하게도 교회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세상을 모방해왔다. 그 결과로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려면, 하우어워스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대안 공동체 혹은 대안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 교회는 폭력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2) 이러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3)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사회적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덕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있다.

두 번째로, 필자는 하우어워스의 교회 윤리에 대한 세 가지의 비판을 제시한다. (1) 하우어워스는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러한 사실은 하우어워스 자신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교회 윤리를 분파주의로 보이게 하는 것 같다. (2) 자유주의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하우어워스는 정의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 그에게 정의는 타자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폭력의 논리가 될 수 있어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고 말한다. (3) 하우어워스의 교회공동체는 권위적이고 엘리트적인 요소를 가진다. 이러한 까닭에 그의 교회 윤리는 교회 성원들 사이에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필자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회 정치적 책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 세상, 교회 윤리, 평화주의